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고클러스터센터
2	X	○	담당팀장 : 박성희 센터장 (031-8064-1716)
			사업담당 : 이찬희 매니저 (031-8064-1772)
			홍보담당 : 강동현 매니저 (032-623-8063)

경콘진, 문화기술 사업화로 지원 기업과 작가 간 협업 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지원기업, 작가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도
- 스티커 사진에 작가의 아트프레임 콜라보, 9월 엘리웨이 광고에 선보여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이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과 경기도 작가 간 협업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은 CT(Culture Technology)로 불리는 문화기술을 콘텐츠와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경콘진은 올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분야 시제품과 제작기술을 보유한 15개사 기업을 선발하여 상용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아트온행거(대표 김다민)는 ‘I can do by myself’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과 ‘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소속 없는 작가들도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솔루션을 다각화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트온행거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www.artonhanger.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작가의 800여 점의 작품을 구경하고 소장할 수 있다.

올해는 9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문화골목 엘리웨이 광고에서 스티커

사진업체인 ‘인생네컷’과 협업한 기획전 <Flash - What an artistic day>을 선보인다. 스티커 사진 프레임에 작품을 새김으로써 작가의 원화, 에디션, 굿즈 등을 소개한다. 아트은행거 피그미작가 MeME를 포함한 총 16명 작가 (ohj paint, 담다, 년지, 이요한, 소진, 메지몽, 이아람, 권태훈, 또림, 김경화, 토리, 박경호, 안명현, 박세연, 이수진)와 초대작가 3명(긴숨, 김기애, 김예원)의 작품이 소개된다.

아트은행거 김다민 대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초기 자금 확보와 전문 멘토링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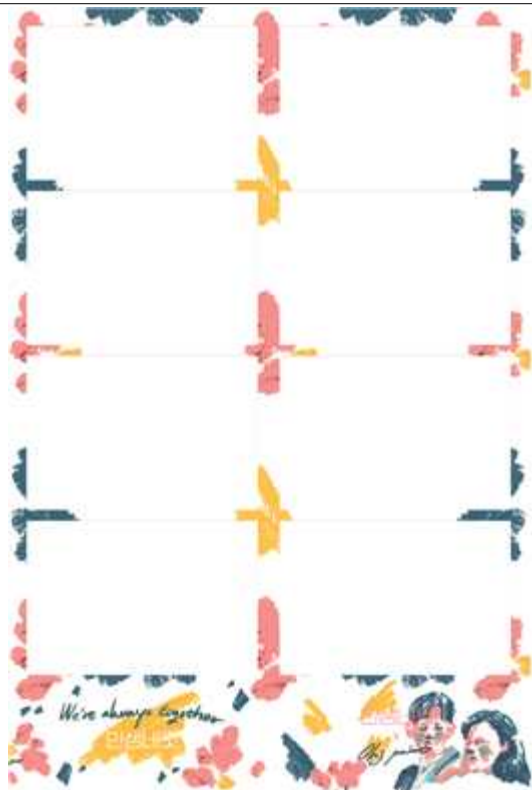
기획전 사진 - 원본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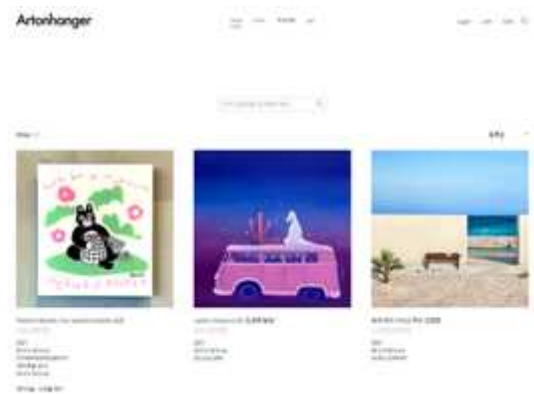
아트은행거X인생네컷 아트프레임



Flash 기획전 현장사진



아트은행거X인생네컷 아트프레임



아트은행거 서비스